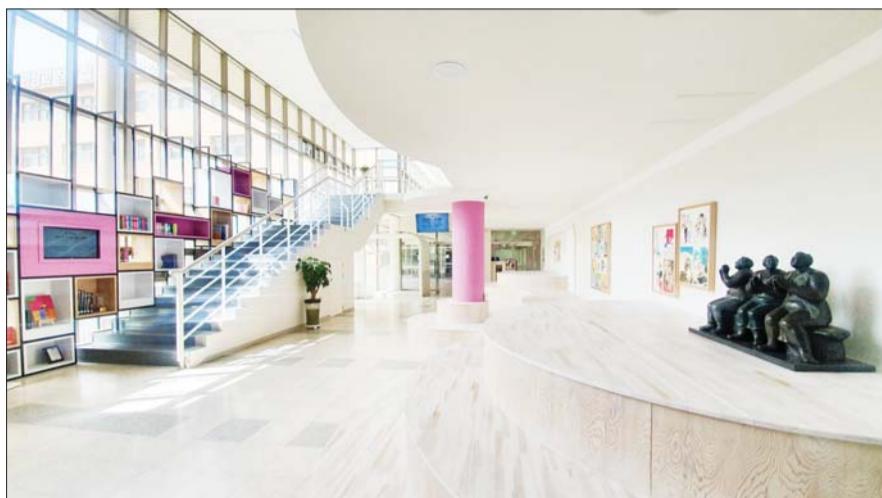


# 학생에 '수업 선택권'… 現 초6, 고교땐 192학점 따야 졸업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내년부터 2024년까지 부분 도입  
2025년 모든 고등학교 전면 적용  
대학처럼 직접 수업 선택하고  
과목마다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 충북 청원고 휴식 전시 공간. 학생들이 선택과목 이동 수업을 할 때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교과서 준비물 등을 교체할 수 있게 조성된 공간이다. /교육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대학처럼 개인 시간표를 짜 학점을 따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출석 일수만 채우면 되는 지금과 달리 3년간 총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 할 수 있다. 학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우선 도입한데 이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부분적으로 학점제를 적용한 뒤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대학'처럼 학생이 직접 시간표 짜… 담임제도 변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를 선정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다. 지난해 732개교, 올해는 1457개교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은 학교가 제시하는 획일적인 시간표 대신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다. 학급 전체를 아울렀던 현행 담임제도 역시 10~15명의 적은 학생을 관리하는 체제로 바뀐다.

현재 고교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심화과목으로 나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과목을 정하고 학생 선택은

제한적이었다. 심화과목은 주로 특목고에만 개설됐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등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모두 학생이 선택하게 된다.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과 수준의 심화·전문과목과 직업계열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인근 고교와 대학과의 교류도 확대된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더라도 인근 고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고, 지역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연계한 과목 개설도 가능하다.

## ◆ 학년별 최소 64학점 이수해야 진급

학생은 3년간 192학점을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현재는 출석 일수만 3분의 2 이상이면 졸업할 수 있지만, 학점 이수 조건이 추가됐다.

교과 174학점, 창의적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된다.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전문공통, 전공일반, 전공실무과목은 전문교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각 학년별로 64학점,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해야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 과목마다 출석 3분의 2 이상, 40% 이상 성취수준을 달성해서 학점을 딸 수 있다.

학업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A(90% 이상), B(80% 이상 90% 미만), C(70% 이상 80% 미만), D(60% 이상 70% 미만), E(40% 이상 60% 미만), I등급(40% 미만)으로 나뉜다.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일 때 미이수(Incomplete)를 의미하는 I학점을 받는다. A~E등급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I등급은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돼 보충이수 대상이 된다.

내신 성적은 2025년부터 모든 선택과목에서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바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석차등급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신 점수

를 유리하게 따기 위해 수강 인원이 많은 수업에 몰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내신성적표에는 과목의 학점수와 원점수, 과목평균 점수, 성취도와 수강자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해 적는다.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한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 공간도 바뀌게 된다. 학생들이 선택과목 이동수업을 할 때 쉬는 시간에 머물 수 있는 휴베이스 공간을 비롯해 가변형 교실, 온라인 학습실, 토의토론실 등이 조성된다.

대학제도도 개편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학제에 맞는 방식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시 방향도 새로 수립할 계획이다. 관련 논의를 올해부터 착수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산업사회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형 대입, 고교 체제 개편 등 2025년까지 고등학교 교육 대전환의 틀대를 단단히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가톨릭대, 부천시와 지역사회 발전 '맞손'

### 지속가능 지역사회 발전 모색하고 민·관·산·학 거버넌스 모델 발굴

가톨릭대와 부천시가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 맞춤형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시는 지난 15일 부천시청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제2회 민·관·학 거버넌스 컨퍼런스'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교류·협약식 및 성과 공유회'를 통해 양 기관은 ▲문화 창의도시 부천시의 발전 위한 공동사업



장덕천 부천시장(왼쪽)과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이 15일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가톨릭대

개발 및 운영 ▲부천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위한 상호 유기적 협력 ▲

부천시 전략산업 고도화 위한 관·학·산 협력 사업의 활성화 ▲부천형 민·관·산·학 거버넌스 모델 발굴 및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가톨릭대와 부천시는 지난 2019년 12월 개최된 '제1회 민·관·학 거버넌스 컨퍼런스' 이후 사회적 경제·도시재생·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활동 및 업무협약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시민과 부천시, 전문가, 가톨릭대가 연계한 지역 맞춤형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79건을 수행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수행한 프로젝트는 지난 8일부터 2월 17일까지 부천시청 1층 로비에 전시됐다. /이현진 기자

## 성신여대, 교육 국제화 역량 우수성 인정

###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

성신여대는 지난 15일 교육부가 주관하는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3주기 인증제는 기존 평가와는 달리 학위 과정(대학원 및 학부)과 어학연수 과정을 분리해 이뤄졌다. 성신여대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 학위 과정과 어학연수 과정 모두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 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이다.

2014년 1주기부터 현재까지 매해 인증을 유지한 성신여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우

수 인증대학, 인증대학, 컨설팅대학, 비자체한대학으로 등급이 나뉜다.

성신여대는 우수 인증대학 선정으로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 정원 제한 해지 ▲정부 초청장학생(GKS) 수학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성신여대 이형민 국제대외협력처장은 "이번 인증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었고, 어학연수 과정 및 학위 과정 모두 불체율 0%를 달성할 만큼 관리 및 지원 체계가 우수하다"며 "또한 본교 신입생 인원수 대비 본교생의 해외파견 비율도 약 21%로 2020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상위 순위에 올라 탄탄한 국제화 역량 기반을 다시금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공유대학 플랫폼 전국 대학에 확대해야"

### 김대중 세종대 교수 제안

"코로나19 교육 위기 극복 도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사진)가 "공유대학 플랫폼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활용하면 지역 거점대학과 국내 모든 대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를 극복할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16일 국회 김영식 의원이 주관하고 K7U 국가중심국립대학 협의체와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주최한 '국립대학, 5G(28㎓) 기반 공동가상 캠퍼



스 구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공유대학 플랫폼은 지난 2018년 서울 종장포럼 회장이 역임한 신구 전 세종대 총장(현 세종 사이버대 총장)이 서울시 예산 10억 원을 지원받아 완성됐다. 김대중 교수는 당시 사무국장으로서 실무를 맡았다. 공유대학 플랫폼은 ▲전산화된 학점교류 ▲융합프로그램 ▲대학 간 연구시설과 도서관 등 교육자원 공유 ▲국민

평생교육 ▲청년 취업과 창업 ▲대학별 행사와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대중 교수는 "공유대학 플랫폼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활용하면, 지역 거점대학과 국내 모든 대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코딩,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과목을 플랫폼에서 공유하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공유대학 플랫폼을 활용하면 ▲청년 취업과 창업 화대로 취업률 증가 ▲대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사교육비 절감과 대학입시 과열 예방 ▲대학 효율성 증대 ▲대학도서관 등 교육자원 시민 이용확대 ▲국민 평생교육 증진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와 협업 보조기기 대여, 인식개선 사업 진행

인천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16일 노틀담복지관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와 장애청소년 및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틀담복지관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는 인천대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을 위해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교내 대학생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보조기기 전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정아 인천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왼쪽)과 이선애 노틀담복지관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센터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대

/이현진 기자